■ 21일 '소리판-꽃구경' 광주 공연 장사익 인터뷰

"노래는 내 삶의 탯줄"

관객들과 소통·공감하니 반응 좋아
광주 공연 많이 해 꼭 고향가는 기분

'소리꾼' 장사익(60)이 21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장사익 소리판-꽃구경' 공연을 갖는다. 외판원 등 10여개 넘는 직업을 전전하다 마흔네살 늦깎이 가수가 된 장사익은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엄마 탯줄 꼭 잡고 있잖유. 늦게 찾은 노래가 내 삶의 탯줄이지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느릿느릿한 충청도 사투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13일 진행된 전화 인터뷰 내내 "감사헙니다" "아이고, 제가 그렇게까지 되남유"를 연발하는 장사익의 모습은 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꼭 닮아 있었다.

-지난달 열린 세종문예회관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관객들이 당신 노래의 어떤 점에 마음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일단 내가 복이 좀 많은 것 같다. 내가 볼 적엔 소통·공감이 아닌가 싶다. 요즘 노래는 즐겁기는 하지만 활동사진같이 흘러가버린다. 난 젊은 사람들보다는 며칠이라도 더 살았기 때문에 노래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관객들이 '저건 내 노래구나' 하며 기억하고 공감하며 위로를 받는 듯하다. 난 별 볼일 없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내 노래가 위안이 된다니 감사할 뿐이다. 책임감도 느끼고.

-노래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 노래의 3분의 1은 '죽음'을 이야기한다. 이번 공연 역시 죽음, 삶, 꿈 세 부분으로 진행한다. 인생 자체가 캄캄할 때가 있다. 하지만 밤에는 낮을, 겨울에는 봄과 여름을 생각해야 하는 게 인생이다. 두려운 죽음에 대해 알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노래는 역설적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노래다. '눈물' 자체는 슬프지만, 비오고 나면 세상이 맑아지는 것처럼 생산적인 슬픔이라고 할 수 있지.

-장사익하면 자신만의 느낌으로 부르는 기존 대중가요도 트레이드 마크다.

▲'대전블루스' 같은 유행가는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던 내 몸과 같은 곡들이다. 사실, 내 노래 메시지가 무겁다 보니 처음엔 관객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 내가 잘 알려진 가요를 부르면 사람들이 "쟤가 까불까불 왜 저런 노래를 부를까"생각하며 동화된다. 일단 마음을 여는 거지. 그리고 앞의 무거웠던 노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음을 여는 것 같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 원동력은 뭔가.

▲내가 직업만 열댓개를 전전했다. 충청도 말로 자발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꿈이 많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능력도 없었지만. 당시 카센터에서 일했는데 기술이 없으니 청소하고 파킹하는 일을 3년쯤 했다. 꼭 이맘때 쯤 일년을 돌아보는데 '어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라 오히려 홀가분했다. '진실로 하고 싶은것을 3년만 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서 조금씩 배웠던 태평소에 목숨을 걸었다.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았던 것은 아니지 않냐'고 다그치면서. 그랬더니 정말 가야할 길이 나타나더라.

-그럼 태평소가 당신을 노래판으로 이끈 건가.

▲태평소를 하고 상도 받고 그랬다. 서태지 '하여가' 때는 함께 무대에도 섰다. 농악판 뒷풀이에서 한 곡조 했더니 '잘한다, 잘한다' 해주더라. 피아노 치는 임동창이 "형님 세상에 나가라"고 등 떠밀어 1994년 홍대 소극장에서 공연했다. 친구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바로 음반 내고. 하루만 노래할줄 알았는데 평생을 노래하게 됐다.(웃음)

-광주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31사단에서 문화선전대로 근무해 전남 곳곳에서 공연했고, 가수 초창기에 광주 무대에 많이 섰다. 그래서 광주 공연은 꼭 고향가는 마음으로 온다. 사람들이 요즘 큰 시련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연으로 차가워진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깃들었으면 좋겠다.

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 가격 8만원~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해양 문화 체험관 개관
탐험선 타고 선조들 생활 경험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은 최근 어린이 해양문화체험관을 개관하고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목포시 남농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내에 위치한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은 660㎡ 규모로,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등대 모형 등의 교육 시설과 생선뼈 탁본 등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은 어린이들이 꼬마 수중고고학자가 돼 우리 선조들의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탐험선에서 선조들의 생활을 배우면서 바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선사시대 고래잡이, 선사시대 가족의 하루, 꼬마등대, 자랑스런 해양 영웅, 보물선을 찾아라, 수중유적 발굴게임, 돛을 올려라, 배무이(전통 배만들기 체험)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지난 12일 '한국의 집 무용단'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등을 초청해 개관기념 행사를 가졌다.

문의 061-270-20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피아노 5중주단 연주회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드맹아트홀

광주피아노 5중주단 제 3회 정기연주회가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드맹아트홀에서 열린다.

동수정(피아노·전남대 등 출강), 김도연(바이올린·스쿨피아오케스트라 악장), 김현철(바이올린·광주시향 상임단원), 임요섭(비올라·서울시향 단원), 오승석(첼로·광주시향 상임단원)씨로 구성된 '광주피아노 5중주단'은 광주에서는 드물게 구성된 5중주단으로 결성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주회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 A장조' 일명 '숭어'와 도흐나니의 '피아노 5중주 C 단조 작품 1'이다.

콘트라베이스 주자 곽효일씨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010-3643-2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社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 오늘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인들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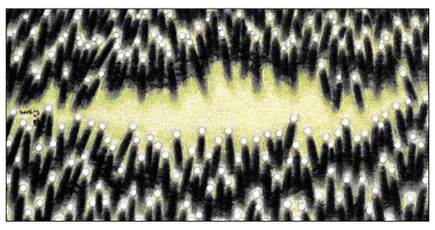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고료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접수마감 : 2008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89)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09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홍성민 '생명의 숲' 展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아시아의 숲'

한국화가 홍성민씨가 오는 19일~2009년 2월 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생명의 숲'전을 갖는다.

홍씨는 아산 조방원 선생의 제자로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작가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커다란 붓으로 기운차게 그려낸 대나무 줄기와 광장으로 몰려든 생명을 형상화 한 '아시아의 숲' 연작을 선보인다.

홍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 PICI갤러리, 인사미술공간 초대전 등에 참가했으며, 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354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은·김훈·공지영·정이현·박범신…

2009 한국문학 기대작 줄이어

2009년 한해도 고은, 김훈, 공지영, 정이현 등 주요 작가들이 작품 출간을 앞두고 있어 불황 속에서도 한국문학 작품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칼의 노래'로 유명한 소설가 김훈씨는 내년 문학동네를 통해 현대를 배경으로 한 신작 장편소설을 선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먼저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이기호(광주대 교수)씨 등도 연재가 끝나는 대로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다.

공씨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연재하고 있는 소설 '도가니'는 상반기 중 창비를 통해 나오며 이기호씨의 '사과는 잘해요'와 박민규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함민복 시인의 에세이 등도 연재를 마친 후 각각 독자를 찾을 예정이다.

또 정이현 씨의 '너는 모른다', 백영옥 씨의 '다이어트의 여왕'은 문학동네에서 각각 봄과 가을께 출간된다.

박범신의 역사소설 '고산자'를 비롯해 박상우, 공선옥, 박성원, 한강, 구경미씨의 신작 장편은 하반기 만날 수 있다.

시집, 평론 및 에세이도 잇따른 전망이다.

시집 가운데에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가 20여년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30권으로 완간된다.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았던 황동규 시인을 비롯 정일근, 김용택, 김기택, 박주택, 김영승, 송찬호, 나희덕, 고형렬, 박라연씨 등도 독자들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